

'인간적인 도시 전주' 조성에 온힘

전주시가 민선6기 후반기 비전인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 발굴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우선 내년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대선공약으로 건의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과 오는 2018년도 국가예산사업 발굴에 힘을 계획했다.

또한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과 후반기 시정운영방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 △청년문제·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작지만 가치

시, 하반기 시정운영방향 뒷받침 시책 개발 나서

있고 시민들의 수요가 높은 소규모 예산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선 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과 후반기 시정운영방향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 △청년문제·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작지만 가치 높은 소규모 예산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중점 발굴할 예정이다. 시는 주요시책 발굴과 함께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존 사업들을 처음부터(zero-base) 재검토해 타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등은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하는 등의 사업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발굴된 시책에 대해서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전문가·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업의 필

요성과 국가예산확보 논리를 개발하고, 보고회를 거쳐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10월경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선6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오는 2017년은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는 해이므로 전주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해 대선공약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작지만 가치 있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들도 중점 발굴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도로 쿨(Cool) 서비스 시행

유동인구 밀집지역 주변 도로 살수작업

덕진구(구청장 정태현)에서는 오는 9월까지 폭염주의보(33°C 이상)와 폭염경보(35°C) 발령시 유동인구 밀집지역과 보행자 도로 12곳을 대상으로 '도로 쿨(Cool)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린대로, 백제대로, 안덕원로 등 11개 주요노선과 유동인구 밀집지역인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전주역, 덕진광장 주변 도로에 하루 1회 실시하던 기존 살수작업을 3~4회로

늘렸다. 또 통행이 많은 주요 보행도로에는 시민들의 불쾌지수 감소를 위해 열을 지속적으로 배지할 계획이다.

열을 배지 장소는 △전주역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동산동 농협 △송천동 우체국 △팔복동 주민센터 △덕진광장 △전북대 구정문 △로매네시점 △인후초교 사거리 △안골광장 △호성동 유원아파트 사거리 등 12곳이다. /김영재 기자



"청년의 미래, '시정명령' 할 수 없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규탄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단체가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시정명령 규탄 청년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2월 4일 오후 7시45분경 고창군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승용차를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2년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유예를 선고받은 등 3차례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재 기자

허위서류로 보험금 타낸 한방병원 운영자 구속

김제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온 보험설계사와 병원 관계자, 나이롱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3일 환자,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사기 등)로 한방병원 운영자 A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진단명 등 서류 조작으로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 B씨(60)와 병원 관계자 2명, 허위 혹은 피해 과장 입원환자 169명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병원 운영자와 보험설계사 등은 지난 2013년 6월25일부터 올해 2월15일까지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 50명, 생활사고(욕실 미끄러짐, 건나가 넘어짐 등) 환자 119명 등 총 169명의 환자를 입원하게 한 뒤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조작해 입원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했다. /김영재 기자

덕진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정태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2015년 1월 28일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올 7월 31일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란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이중주차 등),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덕진구에 따르면 최근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시민의 신고가 간편해짐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주차 위반으로 인한 적발시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7월말 현재 700여건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

작년 동기대비 88%가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각별히 요구된다.

이에 따라 덕진구는 주차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및 공중이용시설에 안내문 배부, 자원봉사자(사랑의 울타리봉사단)를 활용한 거리캠페인 실시 등 140여 건의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시행에 대해 꾸준히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김영재 기자

전주 서부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착공

전북교육청 앞 육교 인근 11월까지 공사 완료 목표

최근 서부신시가지 등 신도시 개발이 잇따르는 전주 서부권에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설치돼 해당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어주게 됐다.

전주시는 인구 밀집지역인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와 관련해 오는 11월 공사 완료로 목표 최근 공사 착공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는 전북도 교육청 앞 육교 인근(효자동2가 1134-1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매설물 및 가로수 이설, 가로화단 철거 후 버스배이 등 시설물 공사가 펼쳐진다.

간이정류소가 준공되면 전주에서 김제, 부안, 정읍, 고창, 무과, 광주 방면의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가 전라북도와 협의해 운행횟수 등을 승인받아 운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거주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북도에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를 요청해왔다. 또, 지난해에는 간이정류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가스

의 협의도 마친 상태다.

시는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설치되면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현재 조성중인 효천지구 등 전주 시외버스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외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와 목포, 고창 등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타지역 관광객들에 게도 아시아 3대 여행 명소이자 대한민국 문화특별도시인 전주의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상주인구 증가, 도심·경찰청·교육청·방송국 등 관공서 이전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 효천지구 개발 등의 요인을 감안해 사업추진을 검토해왔다"며 "간이정류소가 운영되면 시민들에게 생활 편의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설치되면 전주시에 설치·운영되는 기존 덕진 간이정류소 등 모두 9개로 늘어나게 된다. 시는 전주의 첫인상을 바꾸고 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에 대해서는 일일운행횟수 및 이용객 정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대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